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08(24~44)

공간경제 전환의 이론화 : 체제전환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

김부헌** · 이승철***

요약: 지금까지 조절이론은 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의 조절과정에 주목해 온 반면, 공간적 측면의 조절과정은 간과해 왔다. 특히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전환을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이론화하고자 한다. 공간경제는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이를 조건지우는 맥락으로서 사회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따라서 국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이 일어나면,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의 변동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수준의 기업 및 산업 네트워크의 변동이 초래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 본 논문은 기업을 둘러싼 각종의 네트워크를 집합적 의미의 '조절양식'으로 간주하는 '기업 조절양식' 개념 틀을 바탕으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련한 기업 내, 기업 간, 기업 외 관계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체계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제도 및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서, 탈 착근적(단선적 성격의 체제이행), 착근적(연속적 성격의 체제전환), 과잉 착근적(과거 유산에 고착된 성격의 체제전환)인 공간경제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론적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주요어: 연속적 전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조절이론, 사회적 관계, 기업 조절양식, 거버넌스

1. 서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면서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학문 분야는 이행 경제학(transition economics) 또는 전환 경제학(transformation economics)이라고 불렸으며, 세계 여러 대학의 최정상급 거시 및 미시경제학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다(Roland, 2000).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은 1917년 사회주의 혁명,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함께 20세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적 사건들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전환 과정은 지구상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직 ·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만큼, 학문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정형곤, 2001; 진승권, 2004).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s)을 단순하게 경제체제만의 전환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특정 경제체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의 총체적 전환이다.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

* 본 논문은 동국대학교 연구기반 강화사업 (2006-2032-0)에 의해 지원되었음.
** 자운고등학교 교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

는 서로 다르며, 동일한 경제 체제, 즉 같은 국가 사회주의 혹은 같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지라도 시·공간적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Smith, 1998: 27-31). 따라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지리적 전환인 셈이다.

아울러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지역경제의 전환, 산업변동, 지역 재구조화로 총칭되는 공간경제의 전환을 수반한다. 사회적 관계의 구체적 형태인 임노동관계(wage-labour relations), 작업장 조직(workplace organization), 기업의 협력 및 경쟁관계, 기업과 국가 관계, 기업과 금융 관계 등과 같은 제도적 틀은 집합적 의미에서 공간경제 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mith, 1998: 17). 즉 경제체제의 변동은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에 따라서 한 국가의 발전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산업네트워크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집합의 변동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공간경제를 대상으로 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의 경제지리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구체·현실적인 사례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전환을 이론화하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공간경제는 상이한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건지우고 있다. 즉 공간경제는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1)]이 발생하고 조건화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Dunford, 1988: 11).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공간적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이 표방하는 이상과 관련하여, 강제된 산업화(forced industrialization)를 통한 공간경제의 수렴화 현상(convergence)이 나타나며, 때로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투쟁과 갈등이 초래되면서 공간경제의 파편화 현상(fragmentation)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체제 붕괴 이후,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도입되면서 자본축적 전개과정에 따른 산물로서 공간경제의 파편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면서 불균등 지리적 발전이 나타나기도 한다(Smith, 1998: 31-35; Lee and Lee, 2002).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전환을 이론화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을 도입하고자 한다.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전환적 위기를 설명하는 대안적 이론 틀로서 등장한 조절이론은 임노동관계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의 시·공간적 다양성에 주목한다. 실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닌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을 띤 차별적인 발전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Neilsen, Jessop and Hausner, 1995: 4-5),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투쟁 및 갈등들이 조절, 조응, 합일되는 '제도적 타협(institutional compromise)'이 나타나며, 안정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조절 주체의 능동적인 기능과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Dunford, 1990; Smith and Swain, 1998; Jessop, 1990). 이와 같은 실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절이론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론적 틀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공간경제의 변화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적 개념 틀 속에서 논의한다. 우선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속적 체제전환(transformation) 관점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어서 국가 사회주의 체제 하의 사회적 관계와 자본주의 체제 하의 사회적 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특정 경제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제도적 집합들이 공간경제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 틀로서 조절이론의 발전과정 및 조절이론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다. 그리고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조절이론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강점에 대해 논의한 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조절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셋째,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특정 국가 내에서의 산업 재구조화 및 지역발전 등의 공간경제 전환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조절이론 개념 틀을 좀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2)]

이를 위해서 Smith(1998: 17-26)가 제시한 '기업 조절양식(mode of enterprise regulation)'을 토대로 공간경제 전환을 분석하기 위한 조절이론 개념 틀을 제시한다.

2. 사회적 관계와 공간경제의 전환

1) 연속적 체제전환 관점의 필요성

지금까지 이루어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연구들은 연구 경향에 따라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Smith, 1998: 4-9)[3)]. 첫째, 자유민주주의 정권 창출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과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서 시장 우선성(market primacy)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neoliberal perspectives)을 포함하는 '단선적 이행(transition)' 관점이다(Smith, 1998: 4-5). 근대화 이론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제 3세계 발전(third world development)의 시각에서 분석하며,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이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이행할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소위 '충격 요법(shock therapy)' 또는 '빅 뱅(big bang)' 류의 신자유주의적 체제이행 관점에서도 널리 나타난다.[4)] 신자유주의적 체제이행 관점에 따르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는 하루 빨리 자본주의적 시장 기능을 도입 및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체제전환에 대한 '단선적 이행' 관점은 급진적이냐(빅 뱅), 또는 다소 완화된 점진적이냐(미니멈 뱅)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겪는 국가들을 신속하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지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선적 이행' 관점은 체제전환을 '백지 상태(*tabular rasa*)'로부터의 전환, 즉 구체제(국가 사회주의 체제)의 완전한 소멸 뒤에 등장하는 신체제(시장경제체제)에 의한 대체 과정으로 바라본다(Nielsen, Jessop and Hausner, 1995: 4-5). 그렇지만 체제전환 과정을 '백지상태'로부터의 전환으로 바라본다는 자체가 단순한 관념론(simplistic ideology)이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전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신 · 구체제 간의 복합적인 조합 형태를 규명하는 진화론적 경제학, 전환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과거의 제도적 유산을 강조하는 경로 의존적 시각,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조절이론적 관점을 포함하는 '연속적 전환(transformation)' 관점이다(Smith, 1998: 5-9). 체제전환에 대한 '연속적 전환' 관점은 앞서 언급한 '단선적 이행(transition)'과는 달리 체제전환의 정치경제학적 변동을 경로 의존적이며, 착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이다. 진화론적 정치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러한 관점은 체제전환 과정을 과거 제도의 유산,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 상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점진적이며 연속적인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연속적 전환' 관점 하에서 체제전환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Smith(1998: 8)는 조절이론이 산업 변동과 지역의 전환, 그리고 사회적 발전양식 간의 복잡한 조합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재구조화의 발전 궤적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자본주의의 희망찬 경관'이 탈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경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절이론 관점에서 역사 · 지리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정치경제적 전환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 바 있다(이승철, 2005: 96). 결

국 체제전환에 대한 '연속적 전환' 개념에 따르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옛 사회관계가 재가공을 겪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전환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관점인 것이다(Smith and Pickles, 1998: 2).

체제전환에 대한 '연속적 전환' 관점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 · 지리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정책의 집행 및 제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Kolodko, 2001: 294-295). 지금까지의 체제전환 연구는 주로 단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역사 · 지리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정책의 집행 및 제도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체제전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많은 정책적 · 제도적 실수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들은 체제전환 과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라는 쌍두마차를 중심으로 진행된 소위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의 성격[5]이 그러했으며, 이들이 저변에 깔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의 관점 역시 그러했다(Smith, 2002a; 진승권, 2004). 따라서 지역의 성격을 무시한 획일적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안정적인 체제전환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지역의 성격을 고려한 정책 집행 및 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연속적 전환' 관점은 공간경제의 전환을 이론화함에 있어서도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공간경제 전환의 시 · 공간적 차별성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적 속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한 특정의 조절 전략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간적 다양성을 지닌 축적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화된 사회적 전환으로부터 공간경제 전환의 시 · 공간적 차별성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전환이 사회적 관계의 창출 및 재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mith, 1998: 27-28).

2)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적 관계

경제체제 차이에 따라서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Dunford, 1991: 52-53; Smith, 1998: 10-11). 첫째, 자본주의 체제는 재화와 용역을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상품생산체계(system of commodity production)'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2007: 43)는 『자본론 1권』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의 방대한 집적으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기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체계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경제적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생산의 사회적 승인(social validation)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의 교환관계를 통해서 사후적(*ex post*)으로 이루어진다(Dunford, 1991: 53; Smith, 1998: 11).

둘째, 자본주의 체제는 상품생산관계라는 첫 번째 측면과 함께, 임노동관계(wage-labour relations) 및 소유관계(property relations)에 따라서 구조화될 수 있다. 임노동관계는 조절이론가들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형태(institutional forms)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Lee, 2001: 39-40).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을 받는다. 결국 화폐적 가치로 평가받은 노동력인 임금은 노동자의 소비를 위한 자본으로서 기능하게 되며, 노동자의 상품 소비는 자본과 노동력을 재생산하게 된다. 또한 제도적 형태인 임노동관계는 특정의 사회적 발전모델과 관련하여 시 · 공간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적 소유권'과 '상품의 시

장교환 관계(market exchange of commodity),' '임노동관계' 가 일반적이지만, 실제로 모든 자본주의 체제가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집합적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문 중에는 국영화된 부문(nationalized sectors)과 국가 행정 및 집합적 서비스(state administration and collective services)와 같은 부문이 있으며, 비임노동관계 부문(non-wage relations)에는 자영업과 소상품 부문(self-employed and petty commodity sectors)과 여성의 가사노동과 같은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s)이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적 관계 간의 조합에 따라서 시 · 공간적 다양성을 지니는 다양한 자본주의가 존재하고 있다(Dunford, 1990: 304 참조).

한편, 국가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비상품화된 임금관계(decommodified wage relations)' 와 '집합적 자산의 비시장적 상품교환(non-market exchange of collective property) 관계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사회주의 체제를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특정 형태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프랑스 조절이론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연구하면서 나타났다(Chavance, 2002: 267).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 하의 임노동관계를 특정의 조절양식(예를 들면, 노동의 의무와 같은 정치적 측면)과 결합되어 나타난 '특정 형태' 라고 주장했다.

국가 사회주의 체제는 중앙계획경제체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 기능 및 역할은 제한적이거나 축소되어 있었으며,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다(진승권, 2004: 23). 이와 같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상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되지 않으며,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이 계획적 배당을 통해서 사전적(*ex ante*)으로 이루어진다(Smith, 1998: 11; Dunford, 1991: 53). 또한 모든 계획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제 2차 경제 혹은 암흑 경제' 라고 불리는 비공식 경제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계획 경제체제의 논리는 명령에 의한 계획의 완수,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산품과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노력이 극히 저조한 경직적인 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소련에서는 연구자들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은 주지 않고, 오히려 실패할 경우에는 처벌을 주는 기형적인 보상체계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제의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카스텔, 2003: 47).

이와 더불어 국가 사회주의 체제에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연성예산제약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경제현상은 아니지만, 특별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니는 의미가 크다(진승권, 2004: 26; 정형곤, 2001: 9-10). 이는 원래 Kornai(Kornai et al., 2003: 1095)가 만성적인 부족문제에 직면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용어로서, 사회주

		교환관계		
		상품의 시장교환	상품의 시장 및 비시장 교환	사용가치의 비시장적 배당
임금관계	상품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시장 조정 경제체제	
	비상품화		상인 자본 경제체제	국가 사회주의 체제

그림 1. 사회적 관계와 경제체제의 형성

출처 : Smith, 1998: 11

의 체제에서 연성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연성예산제약은 파산의 위협과 같은 부정적 인센티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달성을 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재구조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연성예산제약은 이윤달성을 하지 못한 국영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문적 재분배 과정(sectoral reallocation)을 방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출 조정을 곤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의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Dewatripoint et al., 2000: 143-145).

이러한 연성예산제약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재와 소비재, 노동 등의 부족현상인 '만성적인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Smith and Swain, 1998: 35). Kornai는 이를 '부족경제(shortage economy)'[6]라고 표현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는 부족현상이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고, 예외적이거나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발생하며 그 정도가 심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며, 일시적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제라고 정의하면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부족경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진승권, 2004: 28-30).

3) 공간경제 전환의 메커니즘

지금까지 설명한 개별 경제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 및 특징들은 공간경제 전환의 변증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공간 경제(space economy)는 사회적 재생산이 발생하고 조건화되는 배경이다(Dunford, 1988: 11). 특정 경제체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은 시간적 맥락과 공간적 맥락에서 공간경제 위에 다양하게 펼쳐진다. 사회적 관계들이 시간적 맥락을 지녔다는 점은 과거의 사회적 관계들이 현재의 사회적 관계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환의 '경로의존적' 관점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계들이 공간적 맥락을 지녔다는 점은 사회적 관계들이 공간경제의 영역적 특성(territoriality)에 기반을 둔 '공간적 분업'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Smith, 1998: 27-28).

추상적인 수준에서 볼 때, 공간경제의 전환은 생산력(the forces of production)과 생산관계(the relations of production) 간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Dunford, 1990 참조). 자본주의의 발전궤적에서 나타나는 성장과 위기라든지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하는 경우, 새롭게 도입된 패러다임과 기존의 제도적 틀 간의 조응 노력이 변증법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공간경제의 전환을 구체적 수준에서 바라보고자 할 때는 자본과 자본 관계(capital-capital relations), 자본과 국가 관계(capital-state relations), 자본과 노동 관계(capital-labour relations)라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도화된 조절형태로부터 도출된 '작업장 조직을 둘러싼 투쟁, 산업 축적전략을 구조화시키면서 특정의 조절양식을 창출해내는 잉여가치의 생산방식, 자원의 공간적 배분을 반영하는 통합방식 및 생산조직양식들을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Smith, 1998: 17).' 이들은 사회적 관계가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관계망(relational networks)으로 제도화된 형태이며, 집합적 의미에서 한 국가의 발전양식을 이루는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이다. Smith(1998: 26)는 이들을 일련의 네트워크 집합체로 이루어진 '규범화 메커니즘 체계(system of normalizing mechanism)'로 바라본 바 있다.

결국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같은 경제체제의 변동이 일어나면,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의 변동이 함께 일어나고, 이들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는 구체적 수준에서 산업과 기업을 둘러싼 각종의 관계망의 변화, 더 나아가서 한 국가의 발전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의 제도적 조절양식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들 관계망은 결국 집합적 의미에서 볼 때 조절이론가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조절양식의 구체적 표현이며, 이러한 조절양식이 변한다는 의미는 공간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모순적 속성들이 시·공간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 전환의 본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산업 및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계망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 3장에서는 조절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주요개념을 살펴보고,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조절이론적 접근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장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조절이론

1) 조절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주요개념

조절이론은 현실자본주의의 구체적인 역사 · 지리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재생산 이론(reproduction theory)'과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정태적 '보편균형이론(general equilibrium theory)'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야마다 도시오, 1995; Boyer, 2002)[7]. 1970년대 자본주의 발전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주류 경제학 이론을 비롯한 기존의 담론들은 현실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불균형 이론(theories of disequilibrium), 후기 케인즈주의 모델(post-Keynesian models), 그리고 다양한 구조적 변동과 관련한 이론(theories of structural change)들과 같은 대안적 방법론이 제시되었다(Dunford, 1990: 297). 하지만 이러한 대안적 방법론들마저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자, 네오-슘페터주의 관점과 조절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Dunford, 1990: 297-298).

네오-슘페터주의는 조절이론과 다소 시각 차이를 보인다. 네오-슘페터주의자들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모순적 관계 속에서 1970년대 자본주의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이전 발전모델(포드주의)은 새로운 기술적 발전과 제도적 · 사회적 구조 간의 조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승철 2005). 그렇지만,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이와 같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은 다분히 기술적 요인에 초점을 둔 관점으로서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와 경제적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조절이론과는 분명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Dunford, 1990: 298-300; Smith, 1998: 10).

조절이론에서 '조절'은 마르크스주의의 재생산 개념과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균형이론 등에 대응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사회관계의 전환이 새로운 경제적 · 비경제적 형태를 창출하는 방식과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재생산 구조인 생산양식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Boyer, 2002: 1). 이러한 조절의 개념은 원래는 국가독점이론에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 공산당의 Boccara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Boccara가 제시한 '조절(regulation)' 개념을 de Bernis가 경제학 분야에서 선구적으로 사용하였고, 그레노블 학파에서 '자본주의의 조정기능(adjustment mechanism)'을 연구하면서 점차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Dunford, 1990: 300-301; Jessop, 1990)[8].

1970년대 Aglietta(1979/2000)는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출간한 『자본주의 조절이론 : 미국의 경험(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he US Experience)』에서 상품 관계(the commodity relation)와 임금 관계(the wage relation)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사회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절이론 개념 틀을 정교화 하였다(Dunford, 1990: 301). 특히 그는 이론적 생각들을 토대로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 궤적을 설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그의 연구는 조절이론 개념 틀을 구체적 현실에 적용한 중요한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9]

Aglietta를 비롯한 초창기 프랑스 조절이론가들은 조절의 의미를 경제적 측면으로 한정시켰다.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의 조절 개념은 안정적인 자본축적을 보장하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실천, 제도, 규범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히르쉬(1996)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조절이론가들은 기존 조절개념에 국가이론을

통합시키고, 조절개념을 경제적 측면과 함께 '사회조성양식(model of societalisation, *Vergesellschaftungs-modell*)'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켰다(Jessop, 1990; Dunford, 1990: 303). 여기서 '사회조성양식'이란 제도적으로 매개된 실천의 앙상블(an ensemble of institutionally mediated practices)로서, 정치적·이념적 구조와 함께 가치 생산양식과 실천양식들을 접합 및 통합시키며, 상이한 사회 집단들 간의 일시적 타협을 통한 불안정한 균형을 확보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Dunford, 1990: 303; Jessop, 1990).

이와 같은 조절이론은 시·공간적 다양성을 지니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축적체제(regime of accumulation)'와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 등과 같은 중범위 수준의 매개개념(intermediate concepts)을 발전시켜왔다(Dunford, 1990: 303; Smith, 1998: 13) (〈그림 2〉 참조).

축적체제란 제도적 형태에 의해서 조절되는 생산과 소비 간의 특정 접합(articulat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ee, 2001: 41).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생산의 체계적 분배와 실질적 분배의 형태로서 생산조건의 장기적 변화(투여자본의 규모, 부문과 생산 규범 간의 분배)와 최종 소비조건의 변화(임금노동자와 다른 사회계급의 소비규범, 집합적 소비 등) 사이에 특정한 조응관계'를 의미한다(히르쉬, 1996: 33).

조절이론가들은 '외연적 축적체제(ex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와 '내포적 축적체제(in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라는 두 가지 유형의 축적체제를 분석한 바 있다(Dunford, 1990: 306; Smith, 1998: 13; Lee, 2001: 41-42). Aglietta (1979/2000)에 따르면, 외연적 축적체제는 투입량의 양적 증대에 따라서 산출량(제 1부문의 발전)이 증대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즉 외연적 축적체제 하에서 자본가들은 작업시간의 증가, 기계 가동속도의 증가, 경쟁적 임금체제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절대적 잉여가치'를 착취하였는데, 생산설비의 기계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던 19세기 후반부터 세계대전 전까지 나타났던 체제였다. 그리고 내포적 축적체제는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이 일어나면서 산업전반의 광범위한 기계화를 통해서 대량생산된 소비재(제 2부문)의 대량소비가 가능해지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포드주의(Fordism)' 축적체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내포적 축적체제에 해당하였는데, 이 포드주의 체제는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가 도래하기까지 '포드주의의 황금기'를 이루어냈다.

조절양식이란 사회 내의 여러 모순적 속성들을 조절해주는 집합적 의미의 사회적 관계들의 제도적 형태(institutional forms)를 의미한다. 제도적 형태로서의 조절양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제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들을 완화해주고 해결해줌으로써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조절양식은 하나의 축적체제 안에서 행동양식의 조화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경기규칙(rules of the game)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Dunford, 1990: 306-307; 히르쉬, 1996: 33).

특정 경제체제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를 코드화한 제도적 형태는 프랑스 조절이론가들이 중요하게 취급했던 임노동관계를 비롯하여, 화폐 및 신용체계, 경쟁양식, 국가의 역할 및 특징과 같이 다양하다. 또한 이들 제도적 형태들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경쟁적 조절양식(competitive mode of regulation)'과 '독점적 조절양식(monopoly mode of regulation)'이라는 두 가지 조절양식이 분석된 바 있다.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외에도 Dunford(1990: 304-308)가 덧붙인 산업 패러다임(industrial paradigm)과 헤게모니 구조(hegemony structure) 역시 조절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들이다. 우선 '산업 패러다임' 혹은 '산업화의 지배 패러다임(dominant paradigm of industrialization)'이란 개념은 임노동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적 관리기법의 하나로 등장했던 테일러주의, 포드 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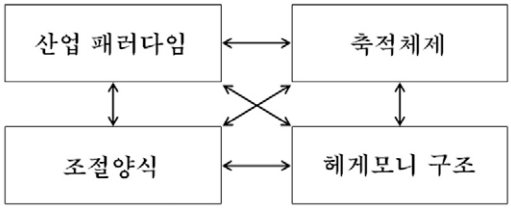

그림 2. 조절이론의 주요 개념

출처 : Benko and Dunford, 1991: 8

차 회사의 컨베이어 벨트 조립라인과 같은 예들이 산업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은 자본축적에 있어서 기술적 요인에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서 주로 네오-슘페터주의 학자들이 연구했던 부분이다. 산업 패러다임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적자원의 기술적 측면들이 생산력을 규정하고, 자본 축적과 투자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Dunford, 1990: 306).

헤게모니 구조 개념은 조절이론에 국가 및 사회이론을 접목하고자 했던 히르쉬(1996)와 Jessop(1983)의 연구로부터 등장하였다. 히르쉬(1996: 87-92)는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간의 안정적인 조응이 경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 수준, 즉 '사회조성양식'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에서 의회나 정당과 같은 국가기구에 의해서 창출된 '헤게모니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사회적 조절을 국가의 조절로 환원시키고, 이 조절 일반 과정에 내재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간과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호기, 1993). 이에 대하여 Jessop(1983)은 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전략 간의 변증법적 관계 측면(구조와 전략 간의 변증법)에서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개념화하였다. 헤게모니 프로젝트란 단지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을 관장하는 경제적으로 조건화된 정치적 · 제도적 · 도덕적 전략을 의미한다. 결국 헤게모니 구조 개념은 기존 조절이론의 지나친 경제 중심 접근(프랑스 조절이론 분파)과 정치 중심 접근(네오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 모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Jessop, 1983: 90).

2)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조절이론 접근의 필요성

자본주의 위기 및 성장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 틀로 등장한 조절이론은 주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를 사례로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절이론 자체가 폐쇄적이지 않고 오히려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필요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Smith와 Swain(1998: 32)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 "우리는 조절이론이 동구유럽 전환의 급진적 정치경제학을 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축적의 형태'와 '조절양식의 제도적 측면과 구조'를 연결 지어 살펴봄으로써 선진 자본주의의 모습뿐만 아니라 시 · 공간적으로 특수한 국가 사회주의 체제의 개별적인 정치경제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경제학을 구성하는 특정의 사회관계와 함께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간의 조응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의 성격에 비추어 조절이론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장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조절이론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다. Nielsen 등(1995: 4-5)이 지적한 것과 같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백지 상태(*tabular rasa*)로부터의 전환이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 유산(institutional legacies)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로 의존적 성격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체제전환 과정의 발전경로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등장하게 될 자본주의의 모습 또한 공간적으로 차별적이다. 이에 시 · 공간적으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임노동관계, 화폐 및 신용체계, 경쟁양식, 국가

의 역할 및 특징과 같은 제도적 형태를 통해서 전환 과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드러낼 수 있다.

둘째, 조절이론은 구체제와 신체제 간의 갈등 및 조응의 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정체성을 밝혀낼 수 있는 이론적 틀이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구사회주의 체제의 유산과 새롭게 도입된 자본주의 체제 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근본적으로 '위기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경향성을 지니는 모순적 속성들이 조절 및 해결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절이론은 사회를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 구성체들 간의 갈등 및 투쟁의 장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대립과 투쟁 구조의 '제도적 타협(institutional compromise)'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조절이론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 전환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다(2장 3절 참조).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의 차별성은 제도적 형태의 공간 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른 결과로 공간경제의 성격이 변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절이론적 접근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 정체성을 가장 잘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4. 기업 조절양식과 공간경제의 전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 전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회적 재생산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체적 수준에서 공간경제의 전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종래의 관계적 접근(relational perspectives)으로부터 도출된 세 가지 관계, 즉 기업 내 관계(intra-firm relations)[자본과 노동 관계], 기업 간 관계(inter-firm relations)[자본과 자본 관계], 기업 외 관계(extra-firm relations)[자본과 국가 관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기업 및 산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간경제의 전환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 조절양식'에서 나타내고 있는 관계망들은 추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체화시켜주며, 집합적 의미의 제도적 틀로서 공간경제 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mith(1998: 25-26)는 이들 관계망이 공간경제 속에 입지한 기업의 생산~잉여자본의 창출~소비의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모순적 속성을 조절하고,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해주며, 또한 특정의 통합 형태를 표방하면서 특정의 발전모델을 구조화한다고 주장하였다.

1) 기업 조절양식의 도입

'기업 조절양식(mode of enterprise regulation)' 분석 틀은 Smith(1998)가 슬로바키아의 공간경제 전환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Smith(1998: 17-26)는 기본적으로 산업발전의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기존의 조절이론 개념 틀을 기업을 둘러싼 관계망 차원에서 확장 및 특수화하였다(〈그림 3〉 참조).

Smith의 '기업 조절양식'은 기존의 기업 네트워크 분석 및 '뿌리내림(embeddedness)' 연구가 기업의 제도적 역동성 측면과 사회적 재생산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규명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Smith, 1998: 18-19). 즉 기업 네트워크, 주로 초국적 기업 네트워크 관점에서 탁월한 경제지리학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Yeung(1997)은 주로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경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어 기업 간, 기업 내, 기업 외 관계 분석을 한 바 있다(Yeung, 1997: 4; Yeung, 1998: 71에 실린 표를 참조할 것). 이와 같은 분석은 지금까지 기업을 추상적인 실체인 '블랙박스(black box)'로 간주하던 한계로부터 탈피하여 네트워크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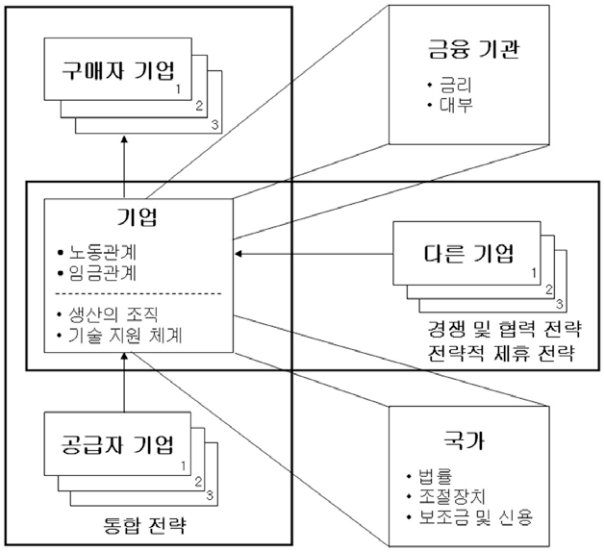

그림 3. 기업 조절양식 개념 틀

출처 : Smith, 1998: 18

계적 접근'으로 바라본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분석 틀은 기업과 산업 체계, 그리고 영역적 차원(territory)을 하나로 엮고 이들 관계를 제도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다는 장점을 지닌다(Dicken and Malmberg, 2001: 347). 그러나 조절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종래의 기업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내의 모순적 속성들이 조절되고 사회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를 간과하고 있다.

'기업 조절양식'은 기본적으로 첫째, 기업의 미시적 분석으로서 임노동관계 및 작업장 조직방식의 분석, 둘째, 공급자 및 구매자 기업과의 통합 양식, 그리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 혹은 협력 네트워크로의 통합 양식, 셋째,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 같은 기업 외 기관과의 협력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 참조). 이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 전환을 이론화하기 위해서 기업 내 · 기업 간 · 기업 외 관계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기업 내 관계

기업 내 관계 분석과 관련하여 Burawoy(1983, 1985)는 기업 내 노동과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작업장의 지배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미시적 조절양식(mode of micro-regulation)'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Smith, 1998: 19). Burawoy(1985: 5)는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방식과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 그리고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작업장을 둘러싼 '생산의 정치학(the politics of production)'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많은 기업 연구가 생산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 이념적 요소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개입을 적절하게 이론화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자본-노동 관계를 재생산하는 '공장체계(factory regime)'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정치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Burawoy, 1983; Lee, 2001: 52).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방식, 예를 들어 임금결정이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혹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노동자의 업무성과가 적절하게 보상받는 방식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정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아울러 노동자의 임금수준 증가가 제 1부문(자본재)의 성장을 돕는지 혹은 제 2부문(소비재)의 성장을 돕는지의 여부는 '외연적 축적체제(ex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에서 '내포적 축적체제(in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로의 전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된다.

노사관계도 중요한 분석 내용 중에 하나이다. 노동조합의 결성이 보장되고 있다면, 노사관계의 성격은 무엇인지(예를 들어, 대립형인지, 협조형인지, 혹은 대립적 협조형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기술체계 및 작업조직과 관련한 정치적 지형, 즉 사회적 헤게모니 구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영희, 1995: 65–66).

끝으로 생산과정이 생산의 내적통합(the internal integration of production)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는 기업의 경제활동 및 지역발전에 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고도로 수직통합적인 체계인 포드주의 모델(Fordist model)은 각 작업장의 속도를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고정자본과 노동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상황적합체계(just-in-case system)'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도로 통합적인 생산과정과 함께 공급기업은 다음 생산과정 속으로 직접 투입되는 산업구조가 출현하였다(Smith, 1998: 20; Lee, 2001: 51–52).

• 기업 간 관계

기업 간 관계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공급자 및 구매자 기업과의 통합양식, 다른 기업과의 협력 및 경쟁양식, 전략적 제휴 등이다(〈그림 3〉 참조). 이와 같은 기업 간 통합양식 및 협력과 경쟁양식의 관계망은 특히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 맥락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를 사례로 한 공급자 및 구매자 네트워크 관계 연구는 주로 글로벌 상품 사슬(global commodity chains) 관점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예를 들어, 이승철(2007)은 한국의 섬유 및 의류산업의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FDI) 사례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해외투자기업과 베트남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 간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섬유 및 의류산업의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비용 및 가격 경쟁력에 토대를 둔 이윤 방어적 투자(profit-defensive investment) 유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투자 기업들은 글로벌 해외 대기업의 글로벌 상품 사슬에 편입되어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대 베트남 섬유 및 의류산업의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는 '구매자 주도 가치사슬'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업 간 관계에서 구매자 주도 네트워크가 우세하느냐 혹은 공급자 주도 네트워크가 우세하느냐하는 점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현지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혹은 현지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권력관계(power relations) 및 거버넌스 구조를 규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 해외직접투자의 현지화(localization)와 관련하여 현지 기업과 해외투자기업 간의 네트워크 특성 역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이후 중동부 유럽(Eastern and Central Europe)에는 서부 유럽의 많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Smith, 2002a).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초창기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동부 해안가에 집중된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였다(Lee, 2001; 삭스, 2006; 나카나가 카츠지, 2003). 일반적으로 체제전환 국가는 적극적인 해외자본유치 전략을 통해서 선진 자본주의 체제를 흡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지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 전환 전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 기업 외 관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는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 와 같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가는 제도 구축자, 갈등 조정자, 협력자로서의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의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국가의 포기(state desertion)' 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적 전략이 강화될 경우에는 기존의 공식적 ·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붕괴하면서 시장경제와 관련한 각종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며(Smith and Swain, 1998: 39-41), 오히려 체제전환 과정의 불안정성만을 증폭시키게 된 경우가 많았다.

신자유주의적 전략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신자유주의적 전략이 의도하듯 순전히 시장 기능만으로 체제전환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국가의 개입이 배제된 순수한 의미의 신자유주의란 존재하지도 않는다(최병두, 2007; 장하준, 2006). 따라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 전반적인 조절절차를 제도화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특히 체제전환 과정과 같은 조절양식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강력하면서도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청된다(Jessop, 1990).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과 국가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국가를 상대적으로 개방된 체제로 바라볼 때,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 과 '헤게모니 블록(hegemonic bloc)' 이란 개념을 통해서 한 국가의 성격이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정의된 국가의 본질 차원에서, 국가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임금관계를 중재하고, 거시 경제적 조정정책 등과 함께 산업 및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서 공간경제 전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Smith, 1998: 25; Jessop, 1990). 아울러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관계,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ist)의 기업 자금지원방식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의 금융권력 간섭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끝으로,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관계는 원래 '기업 조절양식' 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아니지만, 체제전환 국가의 혁신창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자체개발 역량이 내생적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학 및 연구소가 기업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 지를 규명할 할 필요가 있다.

2)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따른 공간경제의 전환

지금까지 기업 및 산업 네트워크 관점에서 구체화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 조절양식' 분석 틀을 도출해내었다. 이제 이러한 '기업 조절양식' 분석 틀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기업 네트워크가 어떻게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조절이론은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측면에서 제도적 형태 간의 조절이 일어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공간적 측면의 조절은 간과하였다(Smith, 1998; Smith and Swain, 1998: 29). 반면 Smith(1998)가 제시한 '기업 조절양식' 분석 틀은 조절이론과 공간적 측면의 논의를 접목시킴으로써 조절이론을 이론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ith의 '기업 조절양식' 분석 틀에는 '사회경제적 체계의 거버넌스(governance)' 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거버넌스 접근은 조절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에 관계에 주목하며, 상이한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 양식과 통합형태 속에 존재하는 협력과정에 주목한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관행(social practices)이 조절 및 상호 작용되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Smith and Swain, 1998: 29). 거버넌스 접근을 도입 및 적용하여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전환을 이론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측면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체제전환 과정

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예를 들어, 현지기업, 해외기업, 국가 및 지방정부, 자금지원을 해주는 금융기관 등)의 권력관계(power relation)를 규명할 수 있다. 특히 행위주체들 간의 권력관계는 협상력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와 같은 차별적인 협상력은 탈사회주의 국가(post-socialist countries)의 전환 가능성과 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제도와 네트워크 간 조합 성격에 따라서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공간전환을 이론화할 수 있다는 거버넌스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복잡한 현실세계를 보다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따른 공간경제의 전환'을 네트워크 및 제도 간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제시한 그림이다. 그림의 상단부분은 Smith(1998: 18)의 종래 '기업 조절양식' 개념 틀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으로서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구체적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의 하단부분은 '기업 조절양식'에 따른 영역적 제도화, 즉 공간경제 전환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동그라미 원은 탈사회주의 국가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며, 원 내부에는 정부 및 금융기관, 기업과 같은 행위주체들 간의 물질적 · 비물질적 교환관계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 4〉에 제시된 모델은 Smith와 Swain(Smith and Swain, 1998: 41; 이승철, 2007: 98)이 제시한 '전환과정 모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4〉에 표현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따른 공간경제의 전환' 모델은 다소 추상적인 제도와 네트워크 관계로 표현되었던 기존의 모델을 기업 및 산업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더욱 구체적 수준의 분석 틀로 향상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기업 조절양식에서 나타난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영역적 제도화에서 나타난 각종의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과정에 따른 공간경제의 전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0]

이제 기업 조절양식의 특성에 따라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가 조절되는 방식을 〈그림 4〉의 (가)~(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도의 고립과 네트워크의 해체 : 단선적 이행 성격의 체제전환

〈그림 4〉의 (가) 경우는 '제도의 고립과 네트워크의 해체(isolated networks and dissolution of pre-existing networks)'로 요약되는 단선적 이행(transition) 성격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탈 착근적(dis-embeddedness)인 공간경제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Smith and Swain, 1998: 39; 이승철, 2007: 97-98). 체제전환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전담론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제적 금융기관의 권력이 강해지고 체제전환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에 형성된 각종 네트워크는 급속하게 붕괴된다. 때때로 탈사회주의 국가의 과거 유산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전후 유럽의 재건 경험과 선진국의 구조개혁 경험으로부터 그대로 차용된 개혁정책이 무비판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Lavigne, 2000: 478). 그리고 탈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해외기업은 현지기업과 네트워크 관계를 갖기 보다는 해외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되며,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다. 이 경우 탈사회주의 국가에 입지한 해외기업의 뿌리내림 정도는 낮으며,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이전 및 가치강화 과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제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의 재구조화 : 연속적 전환 성격의 체제전환

〈그림 4〉의 (나) 경우는 '제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의 재구조화(interaction of institutions and restructuring of networks)'로 요약되는 연속적 전환(transformation) 성격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착근적인 공간경제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Smith and Swain, 1998: 42-43; 이승철, 2007: 98). 이 경우에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의 제도와 새롭게 도입된 자본주의 체제 하의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도 재구조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국가는 적극적인 조절의 주체로서 기능하면서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적 상황들을 조절한다. 즉, 국가는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 내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에서 가치가 창출 · 강화 · 획득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현지의 토착기업은 해외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 및 경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선진기술의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이 지닌 경쟁우위(예를 들어 저렴한 노동비용과 시장의 수요조건)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Henderson *et al.*, 2002: 457).

• 제도의 단절과 네트워크의 지속 : 과거 유산에 고착된 성격의 체제전환

〈그림 4〉의 (다) 경우는 '제도의 단절과 네트워크의 지속(insulated institutions and endurance of pre-existing networks)'으로 요약되는 과거 사회주의 유산에 고착된 성격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과잉 착근적(over-embeddedness)인 공간경제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Smith and Swain, 1998: 42-43; 이승철, 2007: 98-99). 이 경우는 새롭게 도입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관련한 각종의 제도들은 단절되는 반면,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의 네트워크는 그대로 지속되면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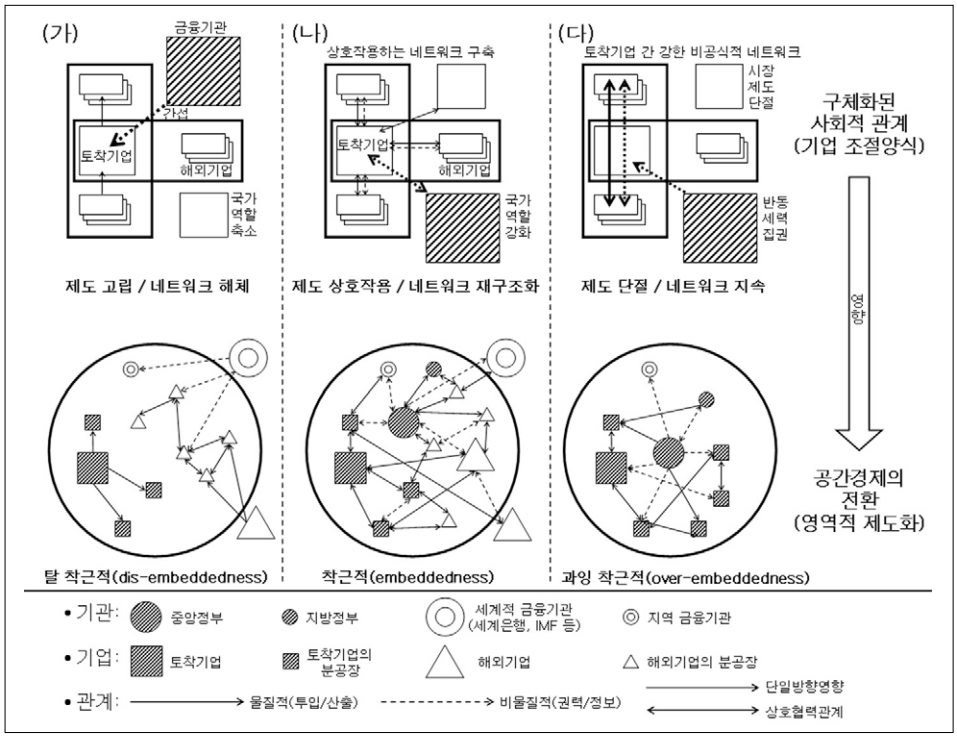

그림 4.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따른 공간경제의 전환

않는다. 공식적으로는 시장개방 정책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국가 사회주의의 사회적 관계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이승철, 2007 참조). 때때로 공식경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호혜적 관계망이 형성되기도 한다(Smith, 2002b 참조). 특히, 이 경우는 반동세력이 정권을 획득하면서 국가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수직적 위계화가 우세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로의 정권 창출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네트워크 내에서 혁신의 창출 정도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전환을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이론화하였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역사 · 지리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연속적 전환(transformation)'의 성격으로 이해함으로써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경로 의존적이고 착근적인 성격을 더욱 정확하게 담보해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 즉,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국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경제체제 전환과 함께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전환을 수반하는 만큼 총체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과거 사회주의의 유산과 새롭게 도입된 자본주의로의 개혁정책 성격에 따라서 시 · 공간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발전궤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재 탈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경제 전환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연속적 체제전환'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이론화함으로써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의 시 · 공간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적절하게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 조절이론은 축적체제(regime of accumulation),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 산업 패러다임(industrial paradigm), 헤게모니 구조(hegemony structure)와 같은 중범위 수준의 매개개념을 통해서 한 국가의 발전양식을 설명한다. 특히 조절이론은 사회 내의 여러 모순적 속성들을 조절해주는 시 · 공간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적 의미로서 조절양식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의 축적체제 안에서 행동양식의 조응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절이론의 주요 개념인 조절양식을 통해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 · 공간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 전환의 메커니즘은 특정 경제체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구체적 수준 변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국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경제체제가 변동하게 되면, 구체적 수준에서 제도화된 사회적 관계의 집합인 '기업 조절양식(mode of enterprise regulation)'이 변화하고 또한 이들은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공간경제 전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업을 둘러싼 관계망들은 공간경제 내 기업 활동의 모순적 속성들을 조절해주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해주며, 또한 이와 같은 집합적 의미의 관계망들은 특정의 발전모델을 구조화하는 조절양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공간경제 전환 메커니즘을 기업 및 산업 네트워크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

넷째,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전환을 '사회경제적 체계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제도 및 네트워크 간의 조합 특성에 따라서 '탈착근적(dis-embeddedness),' '착근적(embeddedness),' '과잉 착근적(over-embeddedness)' 공간경제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즉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의 형성된 제도의 고립과 네트워크의 해체가 나타나면 '탈 착근적'인 성격의 공간경제가 나타나며,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의 제도와 새롭게 도입된 자본주의적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기존 네트워크가 재구조화되면 '착근적'인 성격의 공간경제가 나타난다. 끝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본주의적 제도가 단절되고 기존 사회주의 체제 하의 네트워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과잉 착근적,' 즉 고착된 성격의 공간경제가 나타난다.

본 논문이 지니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경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양식을 중범위 수준의 추상적인 사회적 관계의 제도적 틀에서 기업 및 산업 네트워크 수준으로 분석수준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과 관련하여 기업 내 관계(자본-노동 관계), 기업 간 관계(자본-자본 관계), 기업 외 관계(자본-국가 관계)의 구체적 분석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사례 연구를 할 때 유용한 분석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업 조절양식의 제도와 네트워크 성격에 따라서 공간경제가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따른 공간경제 전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이론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공간이론이 공간경제의 다양성을 단순히 공간전략 혹은 공간정책에 따른 결과에 한정하여 설명하였다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조절이론적 연구 틀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다양한 경제적 행위자들 간의 모순적 · 갈등적 속성들이 시 · 공간적으로 특수한 공간조절양식을 통해서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결국 이와 같은 조절이론적 연구 틀을 통해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역동성(institutional dynamics)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주

1) 사회적 재생산이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수단의 생산 및 재생산, 그리고 인간 삶 자체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산, 분배, 순환, 소비와 같은 독자적인 계기(moments)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들은 동시에 물질적이면서 관념적이고, 물질적이면서 사회적이다(Dunford, 1988: 6).

2) 공간경제의 전환과 관련하여 산업 재구조화 및 지역발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이론'이 필요하다(Dunford, 1988). 이러한 추상화 과정은 사고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고 그 자체로 회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현실 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 절차라고 볼 수 있다(Aglietta, 1979/2000). 따라서 실제 현상으로부터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이론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가 '이론 그 자체는 추상에서 구체로의 운동'이라고 주장했듯이, 추상적 이론은 구체적 현실과의 접합이 필요하다(Jessop, 1990).

3) 이와 같은 분류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지리학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Smith(1998)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출간한 『지역경제의 재구조화 : 슬로바키아의 산업전환과 지역발전(Reconstructing the Regional Economy: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Slovakia)』에 토대를 두고 있다.

4) '충격 요법'이라는 용어는 개발 경제학자인 삭스(2006)가 폴란드의 자본주의로의 경제개혁 과정에 적용했던 급진적이면서 신속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언론 홍보적인 표현이다. 그는 폴란드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건전한 시장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강력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충격 요법'은 폴란드 사례에서 잘 작동하였지만, 러시아 및 일부 구소련 국가에서는 참담한 실패를 하였다(스티글리츠, 2002: 9).

5) 「워싱턴 합의」란 1980년대 남미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저발전국가 경제개혁 정책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지적 풍토를 반영하고 있는 「워싱턴 합의」는 기본적으로 탈규제와 무역자유화, 그리고 엄격한 재정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시각을 지니

고 있다(진승권, 2004: 55-60).

6) 부족경제는 대량소비 없는 대량생산이 아니라, 그 정반대인 만성화된 초과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가리킨다. 장하준(2006: 55-56)은 이러한 부족경제론의 기본적인 함의를 "사적소유의 부재 및 이와 연관된 금융질서의 결여로 인해 국민소득 중 상당한 부분이 물적 · 인적 자원 투입물의 퇴장과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낭비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 사리지게 하며, 실업률 0%라는 정치적 의무와 연결되면서 노동규율에 왜곡된 효과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7) 조절이론가들은 '조절' 이란 개념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재생산 이론' 을 비판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마르크스의 추상적 언술을 정교화하고 누락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8) 조절이론은 다양한 분파를 지니고 있으며, 완성된 이론체계라기보다는 아직도 형성 중인 일종의 '연구 프로그램'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절이론을 말할때는 프랑스 조절이론가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축적체제, 조절양식, 그리고 포드주의의 발전과 그 위기 등의 개념들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 조절이론가들의 논의 자체도 그레노블 학파, 파리 학파, 프랑스 공산당-국가독점자본주의 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훨씬 다양한 조절이론 분파가 존재하고 있다(Jessop, 1990: 155-160). Jessop(1990: 161)은 이처럼 다양한 조절이론의 분파들을 두 가지 지표, 즉 연구의 지리적 범위(일국적 수준인가, 국제적 수준인가)와 연구의 대상(경제적 측면인가, 사회적 측면인가) 간에 조합을 통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한 바 있다.

9) 그러나 Aglietta의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는 Brenner와 Glick(1990)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 『신좌파 평론(New Left Review)』에 실린 Brenner와 Glick(1990)의 "조절접근 : 이론과 역사(The Regulation Approach: Theory and History)"를 참조할 것. 그 밖에 『창작과 비평』 2001년 겨울호에 실린 Brenner와 정성진(2001) 간의 대담을 참조할 것.

10) 그림 4 하단부분의 영역적 제도화 그림은 Henderson 등(2002: 455-457)이 제시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지도화(mapping)' 방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물론 이 지도화 기법은 표현의 제약 때문에 기업 내 관계는 표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가상의 기업 네트워크를 사례로 임의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모델 자체가 현실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네트워크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경제 전환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간명하게 드러내어 준다는 장점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김호기, 1993, "조절이론과 국가이론 : 제솝의 전략-관계적 접근,"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pp.237-257.

나카나가 카츠지 저, 이일영 · 양문수 역, 2003, 중국경제발전론, 서울 : 나남출판. (中兼和津次, 1999, 中國經濟發展論, Yuhikaku Publishing Co. Ltd.)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2007, 자본론 : 정치경제학 비판 1권 (상), 제 2개역판, 서울 : 비봉출판사.

삭스 저, 김현구 역, 2006, 빈곤의 종말, 서울 : 21세기 북스. (Sachs, J., 2005,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The Wylie Agency Ltd.)

스티글리츠 저, 송철복 역, 2002, 세계화와 그 불만, 서울 : 세종연구원. (Stiglitz, J.,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 W Norton & Co Inc.)

야마다 도시오 저, 현대자본주의연구회 역, 1995, 20세기 자본주의, 서울 : 한울. (山田鋭夫, 1994, 20世紀資本主義 - レギュラシオンて讀む, 有斐閣.)

이승철, 2005, "에이드리안 스미스 : 전환기 이후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경제지리학," E-Interview,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이승철, 2007, "전환경제하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 대베트남 한국 섬유 · 의류산업 해외직접투자 사례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pp.93-115.

이영희, 1995,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 서울 : 한울 아카데미.

장하준 저, 이종태 · 황해선 역, 2006, 국가의 역할, 서울 : 부키. (Chang, H-J., 2003,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 Third World Network.)

정성진, 2001, "브레너와의 대담 : 자본주의의 기원과 위기," 창작과 비평 통권 114, pp.388-427

정형곤, 2001, 체제전환의 경제학, 서울 : 청암미디어.

진승권, 2004,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1989-2000,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병두, 2007,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pp.82-103.

카스텔 저, 박행웅 · 이종삼 역, 2003, 밀레니엄의 종언, 서울 : 한울 아카데미. (Castells, M., 2000,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3: End of Millenium, 2nd ed., Blackwell Publishers.)

히르쉬 저, 정명기 역, 1996, 대안 없는 자본주의, 서울 : 한울. (Hirsch, J., 1990, Kapitalusmus ohne Alternative?: Materialistische Gesellschaftstheorie und Möglichkeiten einer sozialistichen Politik heute, VSA -Verlag.)

Aglietta, M., 1979/2000,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he US Experience*, London Verso. (Translated by David Fernbach)

Boyer, R., 2002, The Origins of Regulation Theory, in Boyer, R. and Saillard, Y. (eds.) 2002, *Regulation Theory: The State of Art*, Routledge, pp.13-20.

Brenner, R. and Glick, M., 1990, "The regulation approach: theory and history," *New Left Review* 188, pp.45-119.

Burawoy, M., 1983, "Between the labour process and the state: the changing face of factory regimes under advanced capit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pp.587-605.

Burawoy, M., 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London: Verso.

Chavance, B., 2002, Institutions, Regulation and Crisis in Socialist Economies, in Boyer, R. and Saillard, Y. (eds.) 2002, *Régulation Theory: The State of Art*, Routledge, pp.267-273.

Dewatripoint, M. Maskin, E. Roland, G., 2000, Soft Budget Constraints and Transition, in Maskin, E. and Simonovits, A., (eds.) 2000, *Planning, Shortage and Transformation: Essay in Honor of Janos Kornai*, The MIT Press, pp.143-155.

Dicken, p.Malmberg, A., 2001, "Firms in Territories: A Relational Perspective," *Economic Geography* 77(4), pp.345-363.

Dunford, M., 1988, Capital, the State,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Pion Limited.

Dunford, M., 1990, "Theories of Regul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8. London: Pion Limited, pp.297-321.

Dunford, M., 1991, Industrial Trajectories and Social Relations in Areas of New Industrial Growth, in Benko, G. and Dunford, M., (eds.) 1991, *Industrial Change & Regional Development*, London: Belhaven Press, pp.51-82.

Henderson, J. Dicken, p.Hess, M. Coe, N. Yeung, H. Y-C., 2002,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3), pp.436-464.

Jessop, B., 1983, "Accumulation strategies, state forms, and hegemonic project," *Kapitalistate* 10(11), pp.89-111.

Jessop, B., 1990, "Regulation theories in retrospects and prospects," *Economy and Society* 19(2), pp.153-216.

Kolodko, G. W., 2001, "Globalization and catching-up: from recession to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4, pp.279-322.

Kornai, J. Maskin, E. Roland, G., 2003, "Understand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1(4), pp.1095-1136.

Lavigne, M., 2000, "Ten years of transition: a review articl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3, pp.475-483.

Lee, S-C and Lee, K-B, 2002, "Inward invest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regional economies in China," *DISP* 151, pp.30-41.

Lee, S-C, 2001, The Internationalisation of Productive Capital: Korean Textile and Cloth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unpublished DPhil Thesis of University of Sussex.

Neilsen, K. Jessop, B. Hausner, J., 1995, Institutional Change in Post-Socialism, in Hausner, J. Jessop, B. Nielsen, K. (eds.) 1995,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Institutional Synamics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Edward Elgar, pp.3-44.

Roland, G., 2000,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Markets, and Firms*, The MIT Press.

Smith, A. and Pickles, J., 1998, Introduction: Theorising Transition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formation, in Pickels, J. and Smith, A. (eds.) 1998, *Theorising Transi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Communist Transformations*, London: Routledge, pp.1-22.

Smith, A. and Swain, A., 1998, Regulating and Institutionalising Capitalism: The Macro-foundations of Transformation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in Pickels, J. and Smith, A. (eds.) 1998, *Theorising Transi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Communist Transformations*, London: Routledge, pp.25-53.

Smith, A., 1998, *Reconstructing the Regional Economy: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Slovakia*, Edward Elgar.

Smith, A., 2002a, "Imaging geographies of the new Europe: geo-economic power and the new European architecture of integration," *Political Geography* 21, pp.647-670.

Smith, A., 2002b, "Culture/economy and spaces of economic practice: positioning households in post-communism,"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7, pp.232-250.

Yeung, H. Y-C., 1997, "Business network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 study of Hong Kong firms in the ASEAN region," *Economic Geography* 73(1), pp.1-25.

Yeung, H. Y-C., 1998,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Business Networks: Hong Kong Firms in the ASEAN Reg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교신 : 이승철, 서울시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Tel: 02-2260-3402, Fax: 02-2285-3409, E-mail: leesc@dongguk.edu

Correspondence: Sung-Cheol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il-dong, Jung-gu, Seoul, Tel: 82-2-2260-3402, Fax: 82-2-2285-3409, E-mail: leesc@dongguk.edu

최초투고일 2008년 1월 8일
최종접수일 2008년 2월 13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1, No.1, 2008(24~44)

Theorizing the Transformation of Space Economy: Regulationist Perspectives on the 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

Boo-heon Kim* · Sung-Cheol Lee**

Abstract : Regulation theories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spatial regulation processes, while it has focused on economic and social regulation processes. More specifically, there have been little researches on regulationist approach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socialist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space economy. Therefore, the article has attempted to conceptualize the transformation of space economy under the post-socialist system in the light of regulation theories. The space economy could be regarded as the foundation of the reproduction of social relations. Thus, the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system has led to the fundamental changes in enterprise and industrial networks as well as social relations in spatial contexts. In this perspective, the research has attempted to identify 'the mode of enterprise regulation' regarded as a codified firm networks by investigating intra-, inter- and extra-firm relations associated with the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system. Also, it has intended to suggest three types of the space economy - (1) dis-embedded economies based on the isolated networks and dissolution of pre-existing networks, (2) embedded economies based on the interaction of institutions and restructuring of networks, and (3) over-embedded economies based on the insulated institutions and endurance of pre-existing networks -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ance, institution and networks in the post-socialist system.

Keywords : transformation, 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 regulation theory, social relations, mode of enterprise regulation, governance

* Teacher, Jawoon High School, Seoul/A Graduate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Dongguk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